

授乳服 兼用 妊婦服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沈恩婷 · 金소라*

同德女子大學校 패션專門大學院 패션學科 碩士, 同德女子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助教授*

A Study on the Design Development of a Maternity wear combined with Nursing

Shim, Eun-Jeong · Kim, So-Ra*

M.A., Dept. of Fashion, Graduate School of Fash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design of maternity dress combined with nursing. Six maternity wears combined with nursing were developed through the literature, preceding studies, and web sites those were about pregnancy, breast feeding, a maternity wear, and a nursing wea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order to develop clothes of diverse styles and designs, an after five dress, a poncho style blouse, wrap culotte as well as a skirt suit, a pants suit, an one-piece dress were designed.
2. It was established to make more amounts of front ease than those of back ease and to supplement a frontal hanging portion in consideration of breast development and abdominal prominence.
3. In order to make use of a maternity wear after a birth, stretch fabric was used for an abdominal part or whole clothes. Also an empire line and pleats, a poncho style, a shirts blouse, and inserting a string were used for it.
4. the fabrics of cotton, mixed cotton, polyester were used because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perspires more than others do.
5. The horizontal, vertical, diagonal slits for a breast feeding were made. The storm flap of a trench coat, a machine pleated fabric, a poncho, a bolero style were used for a nursing cover.

Key Words : maternity wear(임부복), nursing wear(수유복)

1. 서론

임신과 출산 후에도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저출산율 해소방안과 모성보호법이 마련되는 등 보육이 가정을 떠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비하지만 직장 내에 수유실 및 보육시설이 증설되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등의 공공시설에서 수유실을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사회생활에 적합한 임부복 전문 브랜드들이 런칭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외출복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수유복의 생산실태를 살펴보면 수유 티셔츠 정도의 생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및 외출시 활용하기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출산 후 여성들은 수유를 위해 유방이 커지는 등의 체형변화가 나타나며 임신 이전 상태로 체형이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부복은 체형이 돌아오기 전까지인 수유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수유복을 겸용한 임부복의 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신 중에 변화하는 신체 치수에 부응하면서 수유의 기능까지 갖춘 수유복 겸용 임부복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줄이면서 임신부와 수유부 의생활의 질적 향상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부복과 수유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임신과 수유에 대하여 고찰한 후 시판되고 있는 임부복과 수유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I장 임신 및 수유에 관한 고찰에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 웹 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임신과 수유에 대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고찰 등을 조사하였다. III장 임부복 및 수유복에 관한 고찰에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 웹 사이트 조사 등을 통하여 임부복과 수유복의 문제점 및 디자인과 패

턴 특징을 분석하였다. VI장 수유복 겸용 임부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서는 수유복 겸용 임부복 6벌을 디자인하여 실물 제작한 후 제작 의도 및 해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I. 임신 및 수유에 관한 고찰

1. 임신에 관한 고찰

1) 사회적 고찰

임신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면서 임신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임신과 출산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인프라라는 인식이 공감되면서 출산장려금과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모성보호관련법안으로 기존 여성인력의 지속적 창출을 돕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임신을 철저히 조절하고 계획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난 후에 임신¹⁾을 할 만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임산부의 신체활동 측면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임신을 하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임부체조, 재즈댄스, 요가, 수영 등의 운동을 즐기는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다.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신세대들은 볼록한 배를 평평잡힌 임부복으로 감추기는커녕 평소보다 더욱 섹시하고 노출이 심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해

파격을 선도하기도 한다. 특히 임신을 직장경력
의 끝으로 여기던 기성세대와 달리 임신과 출산
을 스타일링의 확장으로 활용²⁾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현대 여성들이 과거 여성들과 달
리 더 이상 임신부의 배를 가리려 하지 않고 있
다.

미국에서는 12억 달러 규모의 임부복 시장이
고속성장을 이룬 것과 동시에 임부복 시장에 대
한 개념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틈새시장으로
무시되어왔던 임부복 시장에 대한 대형 소매업계
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시어스
(Sears)도 2004년 3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임부복업체인 'Mothers Work'와 함께 'Two
Hearts Maternity' 라인을 새로 출시하면서 임부
복 분야를 대폭 보강³⁾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임
신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2) 신체적 고찰

(1) 임신경과에 따른 체형변화

임산부의 체형은 정상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임산부의 체형변화 양상은 신체 후면부위보다 전
면부위의 변화폭이 훨씬 크며, 치수가 20%이상
변화하는 부위는 앞뒤밀위길이, 수평허리둘레, 수
평허리두께, 복부두께 등으로 복부부위의 변화가
대략 20~25cm로 가장 크다.⁴⁾ 신체 후면부위보
다 전면부위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임부복 패
턴 제도시 뒤편보다 앞편 폭을 넓게 제도하여 옆
선의 앞솔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임부체형변화에 관하여 항목별 구체적인 변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이항목 중 최대 증가부위는 앞뒤밀위길이로,
임신 6개월부터 증가가 현저하다. 이것은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복부 최대돌출
점과 자궁위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허리둘레선
의 위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앞중심길이는
감소한다. 또한 젓가슴둘레의 증가에 따라 목
옆젓꼭지길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등길
이는 변화가 거의 없다.⁵⁾

앞허리높이가 태아성장에 따른 자궁 저(低)
의 높이 상승으로 인하여 현저히 상승하는 것에 비
해 뒤허리높이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임신 10개월
임부의 경우 앞뒤허리높이에 차이가 생긴다.⁶⁾

이와 같이 등길이, 뒤허리높이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복부최대돌출점과 앞허리둘레선의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 앞이 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임부
복 패턴 제도시 앞처짐분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너비항목에서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두
께항목에서는 배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순으
로 증가율을 보인다. 옆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고
주로 앞으로 돌출함을 알 수 있다.⁷⁾

가슴둘레,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
이둘레, 목둘레 등 모든 둘레 항목이 증가하는데,
임신 3~4개월에는 변화가 적게 나타나나 임신 5
개월부터는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배둘레가 현저
히 증가한다.⁸⁾ 가슴과 엉덩이 부위의 둘레항목은
복부에 비해 임신경과에 따른 증가량이 완만하나
임신말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량이 커진다.⁹⁾

(2) 생리적 변화

임신 중에는 감상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땀이
더 많이 난다. 즉, 발한(發汗, sweating)이 증가
한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 배통(背痛, backache)
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이 늦어지면 근육
통이 생긴다. 임신중기 이후에는 몸이 불편해져
서 불면이 오기도 한다.¹⁰⁾ 또한 피부가 가렵고 발
진이 생기는 임신성 소양증이 나타나는데 주로
가슴이나 배, 다리 등에 많이 생긴다. 이것의 정
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태반에서 분비
되는 호르몬에 의한 간의 작용과 신진대사가 활
발해져 땀을 많이 흘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산 후에는 없
어지므로 임신 중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고 자극
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¹¹⁾

임신 초기의 긴장, 오심(nausea), 구토와 연관
되어 말기에는 증대된 자궁에 의한 위의 변위가
일어나 위 식도 역류(gastroesophageal regurgitation)
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임부복 패턴 제작시 앞쪽

의 여유를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임신 말기 동안 대부분의 여성들은 발목과 하지의 부종을 겪는다. 부종은 대부분 정맥류와 연관되어 활동과 더운 날씨에 의해 그 증상이 증대된다. 자주 앉아서 휴식 시간을 갖게 하고 꼭 끼는 가터(garter)의 착용을 피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¹²⁾

그러므로 발한이 증가하면 땀이 많이 나므로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고 세탁이 용이한 소재가 필요하다. 또한 체열을 잘 발산할 수 있는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발진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의복압을 최소로 하는 원단을 사용해야 하며 디자인 또한 너무 휘트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일, 디자인상 피트감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신축성이 우수한 저어지(jersey)나 면니트를 사용해서 부종과 같은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3) 심리적 고찰

임신은 임신부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험이므로 임부복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임신 중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임신한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 정신활동 증가 등의 정신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우울증은 여성이 갖고 있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려는 자아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임신기간 동안의 심리적 변화는 자부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불안은 개인의 과거경험, 인간관계, 현재 상태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임신에 대한 정신과학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각 개인이 갖는 성장기의 성격형성, 정신적 충격, 잠재적 경험에서 비롯된 각자의 반응 여하에 따라 적응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임신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것에 반응하는 양상의 개인차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임신부는 임신기간 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므로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활동성을 갖추면서도 심미성을 갖춘 임부복을 입으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또한 신체적 변화로 인한 우울증을 아름다운 의복을 입음으로써 해소하려는 욕구를 지닌다.¹⁴⁾ 그러므로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미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 완화 요소를 갖춘 임부복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유에 관한 고찰

1) 사회적 고찰

모유수유는 아기의 두뇌 발달 및 천식이나 아토피성 체질 예방, 질병에 대한 면역성 강화, 소화 증진과 변비, 설사, 구토 예방, 아기의 치아 건강 증진, 비만 예방 등의 장점¹⁵⁾이 각종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으며 최근 들어, 모유수유가 한 살 이내 아기의 사망 위험을 20%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또한 모유수유는 산모의 산후 회복을 빠르게 하고 난소암과 유방암 발병률을 줄여준다.¹⁷⁾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전국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모유를 먹이겠다고 응답¹⁸⁾하여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산모 2만7천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도 출생아 모유수유율이 6.5%로 나타났다.¹⁹⁾ 이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이다.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에 관해 32%는 '직장생활 때문에', 21%는 '가슴 노출에 대한 시선이 부담 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46개 중앙 국가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청 등 총 263곳을 대상으로 '모유착유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착유시설을 갖춘 곳이 18.3%에 불과했고, 여성휴게실이나 모유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21.7%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모유착유시설을 권장하기 위해 일반 기업의 경우 정부가 설치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²¹⁾ 직장생활이 모유수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과 여성들의 복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모유를 짜서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모유착유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수유에 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수유복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2) 신체적 고찰

임신 기간동안 유방은 뇌하수체로부터 지배받는 프로락틴(prolactin)과 성장호르몬(somatotropin)에 의하여 유선(乳線)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은 주로 유관의 상피세포를 발달시키고 에스트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이 통합되어 유선이 풍부해진다. 유선의 발달은 유즙을 생성하고 분비하게 되는데 유즙생성(lactogenesis)은 분만 12주 전에 시작되어 분만 후 2~3일 안으로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프로락틴의 분비는 유류(乳流)와 유륜(乳輪)에 대한 자극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 비수유부는 유즙이 규칙적으로 비워지지 않아 프로락틴 분비의 자극을 받지 않아 젖의 생산이 줄어 유즙 생산이 중지된다. 유즙분비(galactopoiesis)는 유선발달(mammogenesis), 유즙생성(lactogenesis), 유즙분비(galactopoiesis)의 단계를 지나 유방울혈이 이완되어 유즙이 흘러나오는 사출반사(let down reflex)로 수유가 시작된다.²²⁾

태반반출 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

격히 저하되므로 유즙 억제효과가 제거되어 뇌하수체전엽에서 프로락틴 분비가 시작된다. 프로락틴은 태반반출 후 최고로 분비되어 유즙 생산이 시작된다. 프로락틴 분비는 지방과 유장의 합성을 자극하고, 양적으로 증가된 선방세포들에 의한 카제인(casein) 합성을 자극하여 젖을 생산하게 된다.²³⁾

분만 직후의 유방의 상태는 주의할만한 변화가 없어 산후 2일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나, 유즙의 분비가 산후 3~4일부터 시작되면서 유방이 더욱 커지고 단단해지며 민감해져서 유방의 피하에 분포된 정맥이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또한 산모는 유방에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작열감이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유즙분비의 확립과 유즙량은 각 사람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유즙 분비 시작 1일이면 하루에 200~300ml, 4주 말경에 600ml, 정상분비가 되면 1일 900ml의 유즙을 분비시킨다.²⁴⁾

출산 후에는 태아산출에 따라 수유부와 비수유부 모두 밀가슴부위와 체중이 임신 10개월보다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수유부는 젖가슴둘레가 증가하고 목옆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길이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²⁵⁾ 그러므로 수유복 또한 앞판에 여유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유방의 처짐에 따라 젖꼭지정도 낮춰서 제도해야 한다.

산후에는 밀가슴둘레의 감소가 큰 반면, 젖가슴둘레와 가슴둘레는 더욱 증가하여 수유부의 경우 젖가슴둘레가 임신기간 중보다 8.5cm정도 증가하고, 비수유부는 임신 7개월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자궁의 크기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골반내로 하강하게 되는데 임신 36주때 명치까지 올라갔던 자궁 저부의 높이는 매일 약1cm 폭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자궁의 퇴축은 초산부(primipara)와 수유부가 보다 빨리 일어난다. 초산부의 자궁퇴축은 자궁근 섬유의 탄력성이 높아 수축성이 높고, 수유부는 수유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로 자궁수축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자궁퇴축과 함께 임신기간 동안 복강기 내의 장기가 임신 이전의 위

치로 돌아가게 되어 폐의 흉곽용적이 증가하게 된다. 복압과 흉곽 공간의 변화는 호흡기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폐활량(vital capacity)은 느리게 정상화되어 산후 6개월이 되어서야 임신 전 상태로 되돌아간다.²⁷⁾ 따라서 수유복은 임부복과 마찬가지로 패턴 제작시 앞몸의 여유를 충분히 주어 흉부의 압박감을 줄여야 한다.

임신 중의 발한은 출산 후에도 계속되는데 이러한 과도한 발한은 임신 중 축적된 과도한 수액이 배설되는 수분대사 과정이며 피부를 통한 노폐물의 배설로 출산 초기에 가속화되어 점차적으로 호전된다.²⁸⁾ 따라서 수유복 겸용 임부복 소재는 물세탁이 용이한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체중은 임신 및 산후기간의 시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임신전기와 중기 사이에 3.8kg, 임신중기와 후기 사이에 6.3kg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임신 1, 2개월과 최대값을 보인 임신 10개월의 차는 11.8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에는 수유부의 체중이 임신후기 임신부 체중보다 3.9kg이 감소하여 임신 7개월의 체중 수준으로 나타났고, 비수유부의 체중은 7.7kg만큼 급격히 감소하여 임신 4개월의 체중 수준으로 나타났다.²⁹⁾ 출산 후 임신전의 체중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임부복 및 수유복에 관한 고찰

1. 임부복에 관한 고찰

임부복은 임신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이지만 임부의 신체적 부담이 크고 체형변화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평상시보다 더 생리적, 형태적 기능성과 심미성을 중요시해야 한다.³⁰⁾

2002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9.7%³¹⁾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부복 시장은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에 따라 1990년대 처음으로 '우먼스데이'라는 임부복 전문 브랜드가 생겨난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

히 임부복의 의복 형태에 있어서 트레이닝복이 등장하는 등 최근의 다양해진 여성의 활동과 트렌드에 부응하는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부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국내 임부복 시장에서 개선되어갈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복 패턴 제작시 임부의 신체변화를 고려하여 일반의복의 신체치수에 여유분을 더하게 되는데 그 증가정도는 다음과 같다.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앞길이 1inch, 목옆꼭짓길이가 1~1½inch, 어깨너비 1inch~1¼inch, 소매통 1inch, 상의 길이 6inch 등을 증가시키고 유목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임부의 체형변화상 젖가슴둘레와 배둘레가 개월수의 경과에 따라 앞쪽에서 많이 증가되나, 임부복업체에서의 패턴제작시 배둘레에만 앞판에서 2inch 여유분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젖가슴둘레에는 앞판에서 여유분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부는 둘레치수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과 답답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불편한 신체부위로 가슴부위, 팔부위, 배부위, 어깨부위 등을 들었다. 이는 임부의 신체변화상 가슴부위가 커지는데 업체에서는 일반의복과 같은 여유분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임부복 설계시 뒤보다 앞의 변화량이 더 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³²⁾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모두 지적되었으며, 몇 해를 거듭하여도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임부복 착용시 불편사항은 <표 1>과 같다.

배부위가 불편한 경우와 앞들림 현상이 있는 경우는 1998년도의 김희재의 연구보다 이후의 이희승, 최혜선 외, 박미애 등의 연구에서 비교적 적게 나타나 임부복 패턴에서 배부위 여유분과 앞처짐 분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슴부위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들 모두 임부복 제작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배부위와 가슴부위의 여유분과 앞처짐분량을 증가시키고, 임신부의 동작이 불편한 것을 고려하여 입고 벗기 편리한 여밈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표 1> 임부복 상의 및 원피스 착용시의 불편사항

단위: %

선행연구 불편사항	김희재 ³³⁾ (1998)	이희승 ³⁴⁾ (1999)	최혜선 외 ³⁵⁾ (2000)	박미애 ³⁶⁾ (2002)
배부위	26.0	13.5	19.0	16.8
가슴부위	15.8	9.0	28.2	16.8
앞들림	37.7	23.0	19.0	17.8
입고 벗기가 불편함	16.7	10.4	-	15.5
불편한점이 없다	-	26.6	12.3	17.3
기타	-	5.0	2.0	-

※ 합계가 100%가 안되는 이유는 선행연구 항목 중 본 연구에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표로 정리하였기 때문임.

하의의 경우도 둘레치수 부족으로 인해 배부위, 허벅지부위에 피부의 눌림, 조임 등의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엉덩이부위의 경우 배가 앞으로 나오며 따라 옆선이 앞으로 치우쳐져 엉덩이부위가 당기며, 밑위길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배부위와 엉덩이부위가 모두 불편하고 착용상대도 좋지 않으므로 패턴 제작시 앞판을 뒤판보다 크게 제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바지쪽의 경우 다리는 많이 굽어지지 않는데 비해 너무 넓게만 디자인되어 하체가 굽어 보인다는 불만도 나타났다.³⁷⁾

한편, 임산부가 의복을 구매할 때 중시하는 구매의사 결정요인은 디자인, 기능성, 소재, 가격 순으로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고, 기존 임부복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한 것에 불만족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³⁸⁾

특히 최근에는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임산부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출산을 위한 쇼핑, 통원, 예비 엄마교실, 운동, 사교 등 외출의 기회가 많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외출용 임부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임산부가 한정된 임신 기간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호에 맞는 몇 벌의 임부복만을 마련하게 되므로 임신 5, 6개월부터 만삭 때까지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임부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후반기의 임신

부의 경우 변화된 체형 실루엣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부종이 나타나 부석거리며 둔한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단정하며 세련된 이미지의 의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임부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임부복의 디자인이 패션의 유행주기가 짧은 일반 의복에 익숙해져 있는 임부들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월 수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임신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고 세련되면서 유행에 맞는 디자인을 원하고 있으며 활동성 또한 갖춰진 기능적인 임부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선호되는 임부복의 품목에 따른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원피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이는 임신 말기까지의 효용성과 투피스로 된 의복의 형태보다는 원피스가 복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팬츠와 블라우스 또는 팬츠와 셔츠의 의복형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편리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부복 구입시 소재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세탁의 용이성으로 나타났다.⁴²⁾ 이는 임산부는 체열이 높아 땀을 많이 흘리고 특정기간에 입는 옷이므로 많이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물세탁이 용이한 소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 수유복에 관한 고찰

수유는 매일 수회 실시하게 되고, 이때 수유부는 매번 옷을 열어 유방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수유복은 유방을 드러내기 간편해야 하고, 수유가 끝나면 곧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남성의 소변용 개구부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수유나 남성의 배변시 필요한 부분만을 꺼낼 수 있으면 입고 있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다.⁴³⁾

수유복의 트임은 수유 브라지어의 개구부를 고려하여 유방의 상, 하, 내측, 외측 부위에 위치할 수 있다. 내의와 외의의 개폐부위가 어긋나면 유방을 드러내는 절차가 불편하고 개폐부위가 서로 인접하면 유방을 드러내기 편리해지므로 수유복의 트임 위치는 수유 브라지어의 개구부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수유를 고려한 외의의 트임 부위는 <그림 1>과 같다.



출처: 전정희(1998), “수유에 적합한 임신부복 트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그림 1> 수유를 고려한 트임부위⁴⁴⁾



앞중심 수유브래지어
출처 <http://www.littlemami.co.kr>

랩 수유브래지어
출처 <http://www.mothersmilk.co.kr>

어깨 수유구형 브라지어
출처 <http://www.mothersmilk.co.kr>

컵내부 수유구형 브라지어
출처 <http://www.auction.co.kr>

<그림 2> 수유 브라지어의 종류

상단트임은 어깨에서 한쪽씩 내려 여는 트임으로, 어깨의 여밈 부분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수유 후 옷을 여밀 때 매우 불편⁴⁵⁾하므로 수유구의 트임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와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방과 복부의 노출이 많다.

하단트임은 가로 혹은 세로의 수유절개선 위로 수유가리개가 덮어져 가슴부분이 두 장으로 겹쳐지는 형태이다.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와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폐가 용이하여 유방을 드러내고 감추기가 쉽다<그림 2>. 또한 이중으로 되어 있어 유두가 비치지 않는 등 수유의 트임으로 가장 우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측트임은 앞중심에 절개가 있는 수유구로, 앞중심 수유브래지어나 랩 수유브래지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그림 2>. 수유시 개폐가 용이하고 유방을 드러내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유방의 노출이 많다는 단점도 있다.

외측트임은 유방을 중심으로 세로의 절개선이 있는 수유구로,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와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와 사용할 수 있다. 수유시 개폐가 용이하고 유방의 노출부분이 적으나, 수유 중 트임 부위가 아기얼굴에 닿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혜선 외 2인(2000)⁴⁶⁾에 따르면, 수유부들이 선호하는 브래지어가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 앞중심 수유구형 브래지어,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정희(1998)⁴⁷⁾에 따르면, 앞중심 수유구형 브래지어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예전에는 수유의 편의성을 보다 중시하였으나 요즘 들어 수유시 노출부위가 적으면서도 편리한 형태의 트임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유복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시판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유복 판매 웹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백화점과 출산용품 전문점에서 수유복의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극히 소량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수유복은 대부분 소규모의 온라인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검색 사이트 www.daum.net, www.empas.com, www.nate.com, www.naver.com, kr.yahoo.com 에서 '수유복'으로 검색어를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수유복 판매 웹 사이트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수유복을 판매하는 사이트로는 임부복 전문 사이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아·수유용품 전문 사이트, 수유복 전문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나 수유복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임부복 전문 사이트와 유아·수유용품 전문사이트 중에서 최대 수량을 갖춘 사라맘과 마더윙의 경우 수량은 수유복 전문 사이트와 비슷하나 트임과 품목이 다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부복 전문 브랜드인 사라맘의 경우 대부분의 트임이 앞중심에 단추로 개폐하는 내측트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측트임 수유구는 수유시 불편하며 소재와 디자인도 기존의 홈웨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수유구 트임의 종류는 상단트임, 하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으로 하단트임이 가장 많았고, 품목은 티셔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와 셔츠의 비율이 각각 17.4%, 2.9%로 나타나 외출용 수유복이 소량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수유복 판매 웹 사이트

분 류	브랜드명	URL 주소
임부복 전문 사이트	가교	www.marishop.co.kr
	가나임부복	www.7k.co.kr
	공주맘	www.goongjumam.co.kr
	곶지쟁쟁	www.ggonzi.co.kr
	리틀맘	www.littlemom.co.kr
	럭스맘	www.luxmom.co.kr
	마미	www.mami.co.kr
	마미하우스	www.mommyhouse.co.kr
	메르피아	www.merepia.com
	사라맘	www.saramom.co.kr
	아나크	www.anak.co.kr
	이안	www.iyaan.com
	오마미	www.omommy.co.kr
	오블리쿠아	www.obliqua.co.kr
	임부복가게	www.bemom.co.kr
	예쁜하루정	www.ntlive.co.kr
	천사마미	www.1004mommy.com
	팝콘	www.papcon.com
유아·수유용품 전문 사이트	모유수유클럽	www.mothersmilk.co.kr
	마더윙	www.motherwing.com
	메델라코리아	www.medelakorea.com
	베이비슬링	www.bsling.co.kr
	베이비토토	www.babytoto.co.kr
	수유맘	www.sooumom.co.kr
	슬링매니아	www.slingmania.co.kr
	아이슬링	www.isling.co.kr
	키즈앤맘	www.kidsnmom.co.kr
코코슬링	www.cocosling.co.kr	
수유복 전문 사이트	레디맘	www.readymam.co.kr
	밀키웨어	www.milkywear.com
	프리티맘	www.prettymom.co.kr

<표 3> 브랜드의 품목별 트임 종류 수량 분포

단위 : 개(%)

분류	트임종류 브랜드명	티셔츠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				합계
		상	하	내	외	상	하	내	외	상	하	내	외	상	하	내	외	
임부전면	가교	-	-	8	-	-	-	-	-	-	-	-	-	-	-	-	-	8(2.1)
	가나임부복	-	12	1	-	-	-	-	-	-	-	-	-	-	-	-	-	13(3.4)
	공주맘	-	-	8	1	-	-	-	-	-	-	-	-	-	-	-	-	9(2.4)
	곶지쟁쟁	-	10	-	-	-	-	-	-	-	-	-	-	-	6	-	-	16(4.2)
	리틀맘	-	3	-	2	-	-	-	-	-	-	-	-	-	-	-	-	5(1.3)
	마미	-	2	-	4	-	-	-	-	-	-	-	-	-	-	3	-	9(2.4)
	마미하우스	-	-	-	2	-	-	-	-	-	-	-	-	-	3	3	-	8(2.1)
	메르피아	-	8	-	1	-	-	-	-	-	-	-	-	-	-	-	-	9(2.4)
	비맘	-	3	6	-	-	-	-	-	-	-	-	-	-	-	2	-	11(2.9)
	사라맘	-	2	4	-	-	-	-	-	-	-	-	-	2	-	22	-	30(7.9)
	이얀	-	4	2	-	-	-	-	-	-	-	-	-	-	-	-	-	6(1.6)
	천사마미	-	2	3	-	-	-	-	-	-	-	-	-	-	-	3	-	8(2.1)
유아·수유용품	모유수유클럽	-	9	-	-	-	8	-	-	-	-	-	-	-	-	2	-	19(5.0)
	마더윙	-	25	-	-	-	3	-	-	-	-	1	-	-	-	-	-	29(7.6)
	메텔라코리아	-	2	-	-	-	-	-	-	-	-	-	-	-	-	-	-	2(0.5)
	베이비토토	-	9	-	-	-	6	-	-	-	-	1	-	-	-	2	-	18(4.7)
	수유맘	-	8	-	-	-	-	-	-	-	-	-	-	-	-	-	-	8(2.1)
	키즈앤맘	-	11	-	-	-	-	-	-	-	-	-	-	-	-	-	-	11(2.9)
수유복전면	레디맘	-	50	1	3	-	9	-	3	-	7	-	-	-	8	-	-	81(21.3)
	밀키웨어	-	7	-	3	-	20	-	-	-	-	-	-	-	7	-	-	37(9.7)
	프리티맘	-	18	-	-	-	16	-	-	-	2	-	-	-	3	-	-	39(10.3)
백화점	O 브랜드	-	1	-	-	-	-	-	-	-	-	-	-	-	-	-	-	1(0.3)
	P 브랜드	-	-	1	-	-	1	-	-	-	-	-	-	-	-	-	1	3(0.8)
품목별·트임별 합계 및 백분율		-	186 (49.1)	34 (9.0)	16 (4.2)	-	63 (16.6)	-	3 (0.8)	-	9 (2.4)	2 (0.5)	-	2 (0.5)	27 (7.1)	37 (9.8)	1 (0.3)	380 (100.0)
품목별 합계 및 백분율		236(62.1)				66(17.4)				11(2.9)				67(17.6)				380 (100.0)

※ 상: 상단트임, 하: 하단트임, 내: 내측트임, 외: 외측트임

<표 4> 품목별 수유구 트임 비율

단위: 개(%)

품 목 \ 트임종류	상단트임	하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	합계
티셔츠	0(0.0)	186(48.9)	34(8.9)	16(4.2)	236(62.1)
블라우스	0(0.0)	63(16.6)	0(0.0)	3(0.8)	66(17.4)
셔츠	0(0.0)	9(2.4)	2(0.8)	0(0.0)	11(2.9)
원피스	2(0.5)	27(7.1)	37(55.2)	1(1.5)	67(17.6)
합계	2(0.5)	285(75.0)	73(19.2)	20(5.3)	380(100.0)

<표 4>의 품목별 수유구 트임 비율을 살펴보면, 티셔츠의 경우 하단트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측트임, 외측트임 순이었으며 상단트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경우 하단트임과 외측트임만이 있었으며, 하단트임이 주를 이루고(95.4%) 외측트임은 소량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는 전체 품목별 백분율이 2.9%로 소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트임도 하단트임과 내측트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자인의 다양성과 품목의 비율 모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의 경우 내측트임, 하단트임, 상단트임 순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되고 있는 수유복의 내측트임은 홈웨어에서 많이 보이는 라운드 네크라인에 앞중심 단추로 트임을 열고 달아 기존의 홈웨어와 다를 바 없는 기능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수유하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유구의 종류로는 상단트임, 하단트임, 내측트임, 외측트임으로 상단트임이 가장 적었다. 상단트임은 수유시 신체 노출이 많으며 상단의 여밈끈이 어깨 뒤로 넘어가 수유 후 처리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 내측트임의 경우 앞중심에 가로나 세로의 절개선이 있고 절개선을 단추나 지퍼로 개폐하도록 되어있다. 수유구에는 천이 덧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 외측트임은 유두를 중심으로 각각 세로의 절개선이 있으며 스냅단추나 지퍼를 달아 유방의 노출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수유복의 품목으로 티셔츠,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가 있었으며, 품목별 사용 소재로는 평상복은 면과 면혼방을, 그리고 외출복은 폴리에스테르, 면혼방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복 생산 사이즈는 구 호칭 55, 66, 77 또는 S, M, L로 나오고 있으나 브랜드와 디자인에 따라 55, 66이나 S, M 혹은 66, 77이나 M, L 그리고 free 사이즈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대를 보면, 티셔츠는 2~4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블라우스나 셔츠는 3~5만원이었다. 원피스는 5~6만원이 대부분이었으나 디자인에 따라서는 10만원 이상인 것도 있었다.

고객 요구사항⁴⁶⁾은 사이즈와 디자인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는데, 사이즈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브랜드에 따라 같은 사이즈라도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했으며, 디자인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이나 외출용으로 적합한 정장 스타일과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드물게 사교모임이나 돌잔치 등에 입을 수 있는 파티용 수유 드레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축기의 사용과 직장 내 수유실의 증가 그리고 모유 수유 실천을 하고자 하는 직장 여성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업체에서는 아직도 수유복의 구매자를 가정주부로 한정하여 홈웨어스타일 위주의 수유복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수유부도 수유복의 유행성 및 기능성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수유복은 아기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고 연출되어 지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수유 투피스를 많이 생산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출산 후 체형회복이 늦는 수유부의 특성상 임신 전 착용했던 의복이 맞지 않아 의복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축성이 없는 소재의 경우에도 지퍼 및 단추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많아 입고 벗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산모의 체형은 출산 후 6개월 또는 수유기간이 끝나야 회복되므로 임부복은 회복기와 수유기에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⁴⁹⁾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임부복과 수유복은 분리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특정기간에 입는 특수복을 각기 마련해야 하므로 비경제적이고 그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유복 겸용 임부복을 개발하여 임신했을 때는 임부복으로, 출산 후에는 수유복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유의 기능이 부가된 활용도 높은 수유복 겸용 임부복의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IV. 수유복 겸용 임부복 제작 및 해설

1. 제작의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 후 체형이 회복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간에는 임부복으로, 수유기에는 수유복으로 활용 가능한 수유복 겸용 임부복을 개발하였다. 임신과 출산 후의 직장생활이나 친목, 여가활동에 적합한 정장(트렌치코트형 재킷+스커트), 세미정장(셔츠 블라우스+랩 큐트), 캐주얼(블루종 스타일 블라우스 겸용 원피스, 판초 블라우스+칠바바지), 드레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총 6벌을 제작하였다.

수유구로는 사회활동과 수유편리성, 디자인성 등을 감안하여 하단트임과 외측트임, 사선트임을 활용하였고, 트렌치코트의 스톱 플랩과 볼레로

스타일, 판초 스타일, 기계주름을 잡은 원단 등을 수유가리개로 적용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시도하였다.

수유복으로 출산 후에도 착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것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블루종 스타일 블라우스의 끈을 풀어 A라인 원피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여유분이 많은 판초 스타일의 블라우스나 셔츠 블라우스 등을 디자인하였다. 또는 엠파이어 라인과 플리츠를 활용하여 출산 전후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축성 소재를 의복 전체 또는 배부분에 사용하거나, 허리에 단추구멍을 낸 고무밴드를 넣어 배부분의 볼륨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신과 수유기간은 생리적, 체형적 변화가 큰 시기이다. 임신을 하면 체열의 증가로 땀을 많이 흘리며, 수유를 할 때는 젖이 새어 의복에 묻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세탁이 용이한 면, 면혼방,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복은 일정기간에만 입는 옷이므로 소량의 의복만을 구입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체형적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신축성이 있는 면니트나 저어지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과 편안함을 부여하였다.

색상은 안정되고 세련되어 보이도록 하는 임신부와 수유부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톤다운된 베이지와 블루, 보라, 카키 등의 색상과 블랙, 그레이, 화이트 등의 무채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작의도에 따른 수유복 겸용 임부복 제작 계획표는 <표 5>와 같다.

2. 해설

1) 수유복 겸용 임부복 I

직장생활을 하는 임신부 및 수유부에 적합한 정장형 투피스로 트렌치코트 스타일의 블라우스형 재킷과 스커트를 디자인하였다.

체열을 많이 발산하는 임신부의 신체특성과 정장 실루엣에 적합하도록 쿨을 소재를 사용하였으

<표 5> 수유복 겸용 임부복 제작 계획표

의복번호	구성	소재	색상	수유구 트임	실루엣
I	투피스 (재킷+스커트)	쿨울	light beige	외측트임	
II	투피스 (블라우스+ 랩 쿨트)	면혼방	gray, blue	하단트임	
III	원피스	저어지 (폴리에스테르/ 나이론 혼방)	black	사선트임	
IV	투피스 (블라우스+ 칠부바지)	면니트 폴리 쉬폰	dark gray white	하단트임	
V	블라우스 겸 원피스	번아웃 (폴리에스테르)	pale sky	하단트임	
VI	드레스	폴리에스테르 레이스 폴리 쉬폰	pastel violet khaki	외측트임	

며 클래식한 수트에 밝은 베이지 색상을 사용하여 가벼운 느낌과 편안함을 표현하였다. 스톱플랩과 커프스 가장자리에 레드 계열 체크 소재로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하여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스톱플랩이 수유가리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디자인의 다양성과 기능성을 접목시켰다.

재킷에는 프린세스 라인을 사용하여 복부를 슬림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스커트의 허리부분은 단춧구멍을 낸 고무줄을 달아 배부분을 볼륨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판 복부에는 면니트를 사용하여 신축성은 증대시키고 의복압은 최소로 줄여 부종을 방지하였다.

수유구의 트임은 외측트임이며, 어깨 수유구형과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를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판과 앞옆판의 중심에 수직의 절개선을 넣어 배둘레의 여유분을 보충하여 옆선으로 여유분이 쏠리지 않도록 하였다.

라글란 소매를 적용하여 가슴과 어깨에 활동성을 증가시켰다. 앞판 가슴부위에 세로의 수유구를 넣고 양면지퍼를 사용하여 원단의 벌어짐이 없도록 하였다. 수유가리개로 스톱플랩을 활용하였으며 수유구를 가리기 위해 스톱 플랩의 크기를 크게 제작하였다.

2) 수유복 겸용 임부복 II

골프복등 스포티 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랩 큐롯과 셔츠 블라우스를 매치하여 편안하고 자연스런 실루엣의 세미정장으로 캐주얼 아이템을 변경하여 디자인하였다.

흡수성과 손세탁이 용이한 면혼방 소재를 사용하여 위생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툰다운된 그레이, 블루 체크를 사용하여 랩 큐롯의 캐주얼 형태를 보완하여 세미정장 느낌을 살렸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한 2배 분량 기계주름을 잡은 소재를 셔츠 블라우스의 수유가리개와 큐롯의 랩으로 부착하여 디자인 변화를 주었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기계주름을 잡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우수하여 수유시 편리하면서도 수유가 끝난 후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탄성회복률이 우수하다. 여유량이 충분한 셔츠 블라우스를 임부복으로 디자인하여 출산 후에도 임부복 같지 않은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랩 큐롯의 허리 부분은 단춧구멍을 낸 고무줄을 허리단에 달아서 불러오는 배부분을 볼륨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유구 트임은 하단트임의 가로 수유구로 입술과 고리단추를 이용하여 원단의 늘어짐이 없도록 하였다.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와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와와 함께 착용할 수 있다.

3) 수유복 겸용 임부복 III

모던하고 심플한 감각의 스타일로 볼록한 배를 드러내고자하는 임산부의 트렌드에 맞추어 디자인하였다. 원피스의 길이는 무릎선으로 하고, 실루엣은 H라인으로 하여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저어지 소재로 제작하여 활동이 편안하도록 하였으며 볼록하게 드러난 배가 나타내는 자연스런 휘트감을 의도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풍부한 바디 라인이 축소되면서 세련되어 보이도록 블랙으로 하였으며, 단조로울 수 있는 H라인 블랙 원피스에 수유구의 트임과

앞치짐을 조절할 수 있는 은색 지퍼를 달아 샤프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쪽 개폐가 가능한 지퍼를 이용하여 양쪽 유방의 수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골반선 아래에는 지퍼 안쪽에 무(gusset)를 대어 지퍼 개폐에 따라 앞치짐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유구 트임은 내측, 외측, 하단 트임에서 벗어나서 사선 트임을 개발하여 앞중심 수유브래지어, 랩 수유브래지어,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 모두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유를 하지 않을 때는 지퍼를 어깨 부분에서 열어 어깨를 드러내어 멋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유시에는 원하는대로 지퍼를 조절하여 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심미성과 기능성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였다.

4) 수유복 겸용 임부복 IV

판초 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판초의 레이어드 부분을 수유가리개로 활용하면서 쉬크한 보헤미안 룩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소재는 상의의 경우 실켓처리한 면니트를 사용하여 부드러움을 더하여 임신성 소양증과 발진 등을 완화,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의에는 폴리 쉬폰을 사용하여 체열이 높은 임산부의 신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상의는 다크 그레이로 하고 하의는 화이트로 하여 색상의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세로 수유구의 하단트임을 사용하여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와와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수유복 겸용 임부복 V

가벼운 소재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표현하여 배가 불러와도 두드러지지 않는 블루중 스타일의 블라우스 겸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임부복으로 사용할 때는 끈을 묶어 블라우스로 팬츠와 함께 착용할 수 있고, 수유시에는 끈을 풀어 A라인 원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연한 하늘색 바탕에 은은한 장미 문양이 들어간 번아웃(burn-out) 소재를 사용하여 로맨틱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허리부분의 조절 끈도 푸른색의 양면 벨벳을 사용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은은한 분위기에 포인트로 적용시켰다. 수유가리개를 양쪽 옆선에서 스냅단추로 고정하여 소재와 하단트임으로 인한 원단의 벌어짐을 방지하였다.

수유구 트임은 하단트임으로 가로의 수유구를 왼쪽 가슴부터 중심을 지나 오른쪽 가슴까지 길게 주었기 때문에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 랩 수유구형 브래지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수유복 겸용 임부복 VI

사교 모임, 돌잔치 등 파티가 많은 추세를 반영하여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화사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선의 3단 레이어드 스커트가 달린 옴파이어 스타일 드레스를 디자인 하였다. 비딩과 자수가 들어간 레이스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폴리에스테르 레이스와 폴리 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물세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색상은 톤 다운된 연한 보라와 카키를 사용하여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수유가리개의 디자인은 작은 볼레로 스타일을 응용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함께 부여하여 표현하였고, 허리선을 하이웨이스트라인으로 하면서 스커트에 주름분량을 많이 잡아 여유분을 증대시켜 밀가슴둘레 아래부터 불러오는 배를 커버하였다. 또한 옴파이어 라인을 사용하여 출산 후에도 임부복 같지 않은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유구의 트임은 세로의 외측트임이며, 어깨 수유구형 브래지어와 컵내부 수유구형 브래지어를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수유복 겸용 임부복 I



<그림 4> 수유복 겸용 임부복 II



<그림 5> 수유복 겸용 임부복 III



<그림 6> 수유복 겸용 임부복 IV



<그림 7> 수유복 겸용 임부복 V



<그림 8> 수유복 겸용 임부복 VI

V. 결론

임신과 출산 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모유수유의 중요성 인식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에 적합한 수유복 겸용 임부복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임부복을 출산 후 수유복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웹 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임신부와 수유부의 체형 및 임부복과 수유복의 패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신부의 체형은 신체 후면부위보다 전면부위의 변화폭이 훨씬 크며, 특히 앞뒤밀위길이, 수평허리둘레, 수평허리두께, 복부두께 등의 복부부위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목둘레 등 모든 둘레 항목이 증가하며, 임신 5개월부터는 허리둘레가 증가하고 배둘레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임신 전 상태로 체형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6개월 또는 수유기가 끝날 때까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유기간에는 유방의 발달로 젖가슴둘레가 증가하고 가슴이 처지는 등 신체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임부복은 배둘레에만 여유를 주어 유방의 증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 제작시 뒤편보다 앞판을 크게 하여 복부와 유방부위 치수증가에 따른 여유분을 반영하였으며, 복부둘출에 따른 앞치짐분량을 증가시키거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산 후 과도한 복부 여유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복 전체 또는 배부분에 저어지나 면니트 등의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거나, 엠파이어 라인과 플리츠 활용, 판초 스타일 활용, 조절 끈 삽입 등의 방법으로 복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수유구 트임은 수유 브래지어 개구부 위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가로, 세로, 사선의 라인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이

러한 수유구의 트임을 커버하는 수유가리개로 볼레로 형태의 덮개를 부착하거나 트렌치코트의 스톱플랩, 판초, 하단트임을 덮는 이중 가리개 등을 활용하였다.

임산부는 땀을 많이 발산하고 수유부는 모유를 의복에 흘릴 수 있으므로 물세탁이 가능한 폴리에스테르와 면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품목에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과 친목이나 여가를 위한 활동을 하므로 이에 적합한 정장, 세미정장, 캐주얼웨어, 드레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총 6벌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유복 겸용 임부복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실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의복에 대한 착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착의평가를 통하여 임신부와 수유부의 체형에 대한 인체적합성과 수유의 편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이은희, 박영숙(1997), “재생산적 신체 -임신과 출산의 현실-”, *여성과 사회*, 8, 한국여성연구소, p.2.
- 2) “아름다운 임신...날 좀 봐주세요”, (2004, 8, 3), *동아일보*, p.A22.
- 3) “임산부 커네스 패션”, (2004, 6, 1), *머니투데이*.
- 4) 정영아(2000), “임산부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의복형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미애(2003), “임부복 설계를 위한 치수규격 설정과 원피스 기본원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박미애, 앞글.
- 7) 곽혜진(1987), “임산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 스커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희재(1998), “외출용 임부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미애, 앞글.
- 10) 이광혜(1984), “여성보건”, 수문사, p.73.
- 11) 김난영(2004), “임신&태교”, 김영사, p.92.
- 12) 최연순 외 2인(1980), “모성 간호학”, 수문사, pp.127-128.
- 13) 임재린(2000), “직장 임산부를 위한 임부복 design 연구”, *동양대학교 논문집*, 6(1), pp. 477-490.
- 14) 임재린, 앞글.
- 15) “모유 수유율 급감 6.5% 불과”, (2004, 8, 4), *부산일보*, p.29.
- 16) “모유 아기 한살 내 사망 20% 감소”, (2004, 5, 4), *Joins CNN 한글뉴스*.
- 17) “모유, 잘 아는만큼 잘 먹인다”, (2004, 6, 28), *동아일보*, p.D1.
- 18) “모유 수유 최대 장애 직장생활·가슴노출”, (2004, 7, 3), *해럴드경제*.
- 19) “모유 수유율 급감 6.5% 불과”, (2004, 8, 4), *부산일보*, p.29.
- 20) “모유 수유 최대 장애 직장생활·가슴노출”, (2004, 7, 3), *해럴드경제*.
- 21) “국가기관 모유착유시설 태부족” (2004, 8, 1), *imbc 뉴스*, 출처 <http://www.imnews.com>
- 22) 최연순 외 2인(1999), “모성간호학”, 수문사, pp.636-638.
- 23) 최연순 외 2인, 앞글, p.636.
- 24) 최연순 외 2인, 앞글, p.640.
- 25) 정경화(1994), “임산부용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흉부체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정경화, 앞글.
- 27) 최연순 외 2인, 앞글, p.645.
- 28) 이상미 외 2인(2001), “모아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15.
- 29) 정경화, 앞글.
- 30) 최광희(1993), “임산부의 체형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원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통계”, p.41.
- 32) 최혜선 외 2인(2000), “시판 임부복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服飾*, 50(5), pp.65-75.
- 33) 김희재(1998), “외출용 임부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춘추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이희승(1999), “임부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임부복 선호 및 구매실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최혜선 외 2인, 앞글.
- 36) 박미애(2003), “임부복 설계를 위한 치수구격 설정과 원피스 기본원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이희승(2001), “임부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강논총*, 제9호, pp.187-199.
- 38) 최혜선 외 2인, 앞글.
- 39) 김희재, 앞글.
- 40) 최혜선 외 2인, 앞글.
- 41) 이은영(1994), “임부복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강성미 외 7인(1991), “임산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임부복 연구”, *연세대학교 논문집*, 24, pp.10-21.
- 43) 전정희(1998), “수유에 적합한 임산부복 트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전정희, 앞글.
- 45) 전정희, 김여숙(2000), “수유에 적합한 임부복 트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2), pp.141-151.
- 46) 최혜선 외 2인(2000), “수유브래지어를 위한 실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pp.918-927.
- 47) 전정희, 앞글.
- 48) 각 사이트 게시판과 고객불만사항(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 49) 전정희, 앞글.

(2006년 1월 24일 접수, 2006년 3월 31일 채택)